"완도 수협 퇴출땐 어민 생존권 타격"

조합원들 정문·사무실 봉쇄 '파견 관리인' 출입 막아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 동원 퇴출 막겠다" 농성 돌입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실 경영을 이유로 완도군 수협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본보 7월 1일자 2면 보도> 이에 반발해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완도군 수협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 수협중앙회 관리인 7명(대표관리인 1명, 부대표 관리인 2명, 경영관리인 4명)을 1일자로 파견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수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책임관리인들이 수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도군 수협은 지난 1995년 부실조합으로 판정돼 그동안 정부와 조합원 등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 12명이 운영해 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공문을 보내 '2006년 결산기준에 비해 수협의 손실이 늘어나 경영정상화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협 대표 등 12명 이사진 전원을 해임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완도군 수협의 계약분을 올해안에 관내 2개 수협(금일·소안)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실패할 경우 인근 조합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조합원들은 "타 수협으로 계약이전을 추진할 경우 건전한 자산만을 이전하고 조합원과 임직원 등은 불승계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 정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의 제도를 만들어 금융거래 관계자들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시키고 부도를 내는 등 수협에 엄청난 부실경영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협 부실경영이란 진단을 했다"며 "재조정되지 않을 때는 청와대 등 상경투쟁에 나서 어떠한 불상사도 감수하고 어민들과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완도군 수협은 조합원 수가 1만 250여명으로 단일 수협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완도수협 조합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강력 반발해 정문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선 4기 2년 결산

■전 완 준 화순군수

"숲가꾸기 사업, 전국서 벤치마킹 몰려"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올인하겠습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온 결과 조직이 안정되고 공직사회의 의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며 "군정에 협조해 준 군민과 고통을 감내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민선 4기 2년간의 화순군 성적표는 화려하다. 전국 최초로 인허가 전담창구를 개설, 처리 기간을 45%나 대폭 줄여 민원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화순군의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이 정책으로 채택할 정도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50개 기관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화순을 방문했다.

농업발전에 대한 실적도 눈부시다. 지난해 450억원이던 농업관련 예산을 올해는 660억원으로 대폭 늘려 농업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자연속 愛'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재와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함으로써 판매난에 허덕이던 지역 농가의 고충을 해소했다.

'자연속愛' 공동 브랜드 개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 추진
전국 첫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

지난 4월엔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합 실내문화체육관을 전국 최초의 수직건물로 건설해 공사비 100억원과 연간 운영관리비 7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광주 도시철도가 화순까지 연장되도록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전 군수는 지난 2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화순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VISION 1030'으로 요약된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해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고, 군청 부서를 4개팀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였다.

전 군수는 "전반기에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았기 때문에 후반기엔 가시적인 성과들이 착실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화순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생물·의약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특히 "농업이 중시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10대 특산품을 육성하고 한방산업을 일으키는 농업발전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한말 김태원 의병장 어등산에서 전사"

순천대 홍영기 교수 밝혀

나주출신 죽봉 김태원(1870~1908) 의병장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어등산 자락에서 발견됐다.

한말 의병사 전문가인 순천대학교 홍영기 교수는 최근 답사 결과와 주민들의 증언, 일본측 기록 등을 토대로 '광산구 서봉마을의 등산로 1㎞ 위에 위치한 마당바위에서 300여m 떨어진 바위굴 일대가 김태원 의병부대와 일본 군경간 최후의 격전지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1908년 4월 25일 제 2특설 순사대는 어등산 박산동을 포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김태원 의병장과 부하 김해도 등 호남 의병 13명(혹은 23명이라고 함)이 토굴과 바위굴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홍영기 교수는 "어등산은 김태원 의병장과 조경환 의병장 등 수많은 의병부대들의 전적지였다"며 "장성의 동학농민군 승전기념탑, 상무지구 5·18기념공간, 망월동 5·18묘역과 어등산의 한말 의병 기념공간을 엮어 '의향문화벨트'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함평 골프고 '역시 스포츠 명문'

신혁철 골프대회 남고 1위…레슬링팀도 전국 제패

함평골프고등학교의 골프부와 레슬링부가 최근 치러진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했다.

함평골프고 1학년 신혁철 선수는 지난달 29일 제주 라헨느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제 19회 그린국제골프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1위에 올라 국가대표 상비군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함평골프고는 신지애 선수를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우승으로 골프특성화고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또 이 학교 레슬링팀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청주국민생활관에서 진행된 제 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금2, 은1, 동1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가장 오랜 전통의 이번 대회에서 지난 1979년 첫 우승 이후 29년만에 두번째 우승을 일궈내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함평 레슬링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관 함평골프고 교장은 "골프 특성화 학교로 개편한 지 6년만에 레슬링 명문고의 명성을 빛내고 신흥 골프 명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고객과의 소통'으로 성과 창출

농촌公 전남본부 경영특강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전략적 성과창출과 고객만족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18개 지사장과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업손익 달성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경영실적 점검회의를 마친 후 임경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를 초청해 12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 고객만족'이라는 주제로 경영특강도 실시했다.<사진>

장봉조 본부장은 "모든 사업과 경영활동을 고객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고객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영암 삼호읍에 高校 설립 탄력

토지매입·설계비 34억여원 도의회 통과

영암군 삼호읍에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삼호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9억6천100만원과 설계비 4억9천100만원 등 모두 34억5천200만원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영암군에서는 추경에 토지매입을 위한 1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삼호고등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삼호읍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활성화로 상주인구가 늘고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어 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목포에 거주하거나 학생들이 원거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영암군은 최대한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